



**NET MISSION
COMMUNITY**

address:
Casilla 31
Cochabamba
Bolivia

phone: 591-7222-4255
kwangmoonko@hotmail.com

L A S C A R T A S



옥수수
파종 후
1주일

바쁘기도 했고 변화도 많았던 축복의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스왈도 챔버스 목사님의 글이 떠오릅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9년이란 시간동안 많은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며 일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의 계획들과 사역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았는지를 돌이키며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의 교회 사역과 교육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는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볼리비아 땅을 밟으며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바라고 소망하던...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을 리더로 세우는 사역을 분명한 비전으로 확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의 사역을 접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꾸는 꿈, 소망, 이 모든 것들에 우연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부터는 이 리더를 세우는 선교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가슴이 뛰고, 기쁨도 충만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물도 길도 없는 황무지에 꽃을 피워야 하는 일이지... 이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화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이 동반되는 일이지...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게 된다

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동안 저희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볼리비아 땅을 생각하며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값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지고 살아 갑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이 사랑의 빛을 갚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가슴 뛰고 기쁨이 충만한 일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 은실 선교사



Vision Statement :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Mission Statement :

기독교 공동체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굴 양육하며
그들을 믿음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눕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선교 훈련원 주위에 사는 이웃들을 방문하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복음을 나누는 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40 여 가정을 방문하며 지역이 고산인지라 때로는 오르막 길도 올라야 하고 작은 시내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때로는 따가운 햇살로, 때로는 먼 거리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b)”이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 가정들을 방문하며 기도로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함과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인해 부듯했습니다. 어떤 이는 콩을, 어떤 이는 달걀로, 어떤 이는 호박을 저희에게 주며 서로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성탄 행사를 통해 더우기 의미있었던 것은 지난번 감자 수확 후 수익의 십일조로 준비된 선물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7장 8절에서 지혜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의미를 믿음과 기도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2014년의 시작보다 끝이 나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 & 영생=
오직 예수

기도 제목입니다!

1. 사역을 확장하며 새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월 초순 다른 오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기철이라 따르는 위험이 있지만 이정탐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놓으신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월드 휴먼 브리지 NGO 사역이 2월 초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능력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역이 새해를 맞아 아름답게 시작되고 또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